

## 서울대학생 글쓰기 윤리교육을 위한 연구

최근 『대학신문』(2008. 4. 7)에 “글쓰기 윤리지침 제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바 있다. 기사의 요지인즉 학생들이 글쓰기에서 저지르기 쉬운 부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나, 그것이 단지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로만 자리매김되어서는 곤란하며 이를 통해 글쓰기 윤리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는 것이다. 지당한 말이다. 사실, 『대학신문』에는 글쓰기 윤리지침이 제정된다는 점만이 부각되었지만,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글쓰기 윤리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처음부터 전제되어 있었다. 교무처 정책연구과제로 2007년 8월~11월에 진행된 “서울대학생 글쓰기 윤리교육을 위한 연구”는 이러한 고민을 풀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글쓰기는 대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능력이다. 대학생황에서 지적 탐구는 글쓰기로 시작하여 글쓰기로 완성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쓰기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문제의식, 그리고 종합적 판단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은 전공분야를 막론하고 학문의 기초소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글쓰기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대학졸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적 자질이다.

글쓰기 교육의 기본 내용 중 하나인 글쓰기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조급한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타인의 지적 성과를 부당

### 이수형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

- \* 연구책임자: 임홍배(독어독문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주경철(서양사학과 교수), 이경우(재료공학부 교수), 정원규(사회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신선경(기초교육원 대학국어 강사), 정병기(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교수), 김재영(기초교육원 과학기술글쓰기 전임대우강사), 이수형(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  
자문위원: 김완진(경제학부 교수, 교무처장), 양호환(역사교육과 교수, 교무부처장),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교수, 기초교육원 글쓰기 주임교수), 유영제(화학생명공학부 교수)  
연구보조원: 정유진(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하게 도용하는 사례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이른바 ‘학점경쟁’에 시달리는 대학생들 역시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글쓰기 윤리의 중요성과 글쓰기 부정행위의 폐해를 인식하고 올바른 글쓰기 방법을 배울 기회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생 글쓰기 윤리교육을 위한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필요한 윤리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서를 만드는 것이다.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과제물이나 논문을 위해 여러 종류의 글을 써야 하지만, 표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글쓰기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비윤리적 글쓰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글쓰기 윤리의 교육이 시급한 형편이다.

#### 1장 글쓰기 윤리의 중요성

1. 학문 활동과 글쓰기
2. 연구의 정직성과 연구부정행위
3. 학생들의 글쓰기 부정행위
4. 표절의 유형

#### 2장 글쓰기 윤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

#### 3장 윤리적 글쓰기를 위한 유의사항

1. 학생들이 표절에 취약한 이유와 교수자의 할 일
2. 윤리적 글쓰기를 위한 유의 사항

#### 4장 올바른 인용

1. 생각과 말
2. 인용이란?
3. 인용의 원칙
4. 표절
5. 출전 표기의 실제

#### 5장 비윤리적 글쓰기의 유형과 사례

1. 전문 도용(全文 盜用)과 무임 승차
2. 자기 복제와 중복 제출
3. 자료 위조
4. 자료 변조
5. 표절과 짜깁기

“서울대학생 글쓰기 윤리교육을 위한 연구”의 보고서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글쓰기 윤리의 중요성’에서는 학문을 하는 윤리적 자세 및 그 중에서 특히 글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제2장 ‘글쓰기 윤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서는 글쓰기 윤리에 대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제3장 ‘윤리적 글쓰기를 위한 유의 사항’에서는 글쓰기 윤리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 ‘올바른 인용’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적절하게 참고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5장 ‘비윤리적 글쓰기의 유형과 사례’에서는 글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여러 경우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 및 보고서를 기초로 제작된 글쓰기 윤리 안내서에 제시된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여 조심한다면 누구든 올바른 글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부정행위들은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글쓰기 윤리에 대한 교육은 비단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이 준비된 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글을 산출해 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 리포트 특강 - '독서와 서평'

글쓰기교실에서는 매학기 1~2회 ‘독서와 서평’을 주제로 **리포트 특강**을 개최합니다. 특강은 자기 관점이 뚜렷한 서평을 쓰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기본 방법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문 의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61동 312호)  
<http://writing.snu.ac.kr> 880-1415~6, 9294~5